트렌드 Trend

휴양림서 '몸' 닦고…사찰서 '마음' 닦고…해외여행은 리조트로

'관광'보다 '휴양'

템플스테이·백아산 휴양림 등 인기

◇구경보단 "쉬고 싶어"=유명 관광지를 찾는 발길이 급감했지만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른바 '웰빙'을 위한 휴가족들이 늘고 있다. 화순 백아산 휴양림은 여름 휴가철을 맞은 요즘 자연을 만끽하려는 수 백 명의 사람들로 연일 인산인해다.

19개의 방은 일찌감치 예약이 끝나 이달 말까지 만원이다. 전남도내 10개 자연휴양림도 더위를 피해 숲을 찾아온 피서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도내 자연휴양림을 찾은 관광객은 모두 7만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늘어난 수치다.

◇해외여행도'휴양'선호=해외 여행객들도 관광상품보다는 해외 유명 리조트 등을 찾고 있다. '하나투어' 필리핀 상품의 경우 1.3(휴양)대 1(관광)의 비율로 휴양지를 선호하고 있다. 8월19일까지 마닐라의 몰리간 리조트 상품은 이미 모두 매진됐다. 중국 하이난다오(海南) 호라이존 리조트 상품의 경우도 오는 20일까지 모두 예약이 끝난 상태다.

하나투어 이명옥 팀장은 "해외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이용객들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관광상품보다는 자유시간이 많은 휴양상품을 선호하고 있다"면서 "특히 젊은 층과 가족여행객들이 휴양상품을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직항로 이용 '해외행' 급증=최근 광주공항에서 출발하는 해외 직항로가 많이 개설되면서 직항로를 이용한 해외행도 급증하고 있다. 인천공항을 통해 출발하는 코스보다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하나투어'의 경우 지난달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모집한 해외여행객 2천515명 가운데 375명이 광주공항에서 출발하는 상품을 선택했다. 이달 예약객 2천393명 중 561명도 광주공항을 통해 해외여행을 떠난다. 현재 광주에서 출발하는 해외 직항로는 필리핀 마닐라, 중국 상하이·베이징·선양·톈진, 몽골 울란바토르 등 6개 코스가 있으며, 모두 주 2회 운항 중이다.

◇혼잡 벗어나 사찰로=인적이 뜸한 산 속 사찰에 들어가 수양을 하는 '템플 스테이'도 인기를 끌고 있다. 전남에서 '템플 스테이' 사찰로 지정된 곳은 송광사·화엄사·백양사·대흥사·백련사·대원사·미황사·불회사 등 모두 8곳. 대부분 1박2일 또는 2박3일동안 진행되며, 가격은 2~3만원대다. 지난 한 달 동안 해남 대흥사에 150여 명, 백양사와 대원사에는 각각 120여 명씩이 다녀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달라진 피서

집중호우가 끝나고 폭염과 함께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다. 대부분의 피서객은 산과 바다를 찾아 휴가를 즐기고 있지만, 올해는 좀 더 특별한 휴가로 그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야겠다는 이색 아이디어가 눈길을 끈다.

광주 우치동물원의 여름나기

펭귄 해만 뜨면 에어컨 생활
백곰 '얼음 과자' 먹으며 물놀이
닭·꿩은 '모래 찜질' 피서 즐겨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 30도를 훌쩍 넘는 땡볕 더위'. 열대야(熱帶夜)가 계속되면서 광주 우치동물원에 있는 동물들도 '불편한 밤'을 보내고 있다.

가장 힘들어 하는 동물은 펭귄. 지난해 4월 말 용인 에버랜드에서 들여온 펭귄은 추운 날씨에 익숙한 터라 여름만 되면 힘없이 '축축' 늘어진다. 동물원은 10평 규모의 펭귄사(飼) 내실에 지난달 28일부터 에어컨을 틀었다. 가동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20도 이하를 유지한다. 내실 밖 방사장(20여 평)에는 100만원을 들여 '해가림막'을 설치했다. 여름에 걸리기 쉬운 '곰팡이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매일 아침 표백제로 청소한다.

북극곰(백곰)은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면 어김없이 방사장 앞에 있는 10평짜리 대형 시멘트 욕조에 몸을 담근다. 사육사는 하루에 두 번, 욕조의 물을 시원한 것으로 바꿔주고, 얼음 덩어리도 띄워준다. 먹이는 닭·캥거루·사과·야채 등을 한 데 넣어 물에 얼린 뒤, 잘라 준다. 음식들이 얼음 안에 박혀있는 형태인데, 이 '얼음 과자'를 넣어주면 북극곰은 혓바닥으로 핥거나, 몸을 비비고, 먹는다.

사슴사에는 짚으로 엮은 원형 그늘지붕이 있다. 오후 1~4시쯤, 뜨겁게 햇살이 내리쬘 때면 4평 정도의 작은 그늘막이 생긴다. 원형 지붕에는 가로·세로·높이 각 30㎝ 크기의 '미네랄블록'(mineral block)을 달아놨다. 사슴들은 그늘 아래서 이 벽돌처럼 생긴 영양제를 핥아먹으며, 더위를 쫓는다.

더위를 즐기는 동물도 있다. 닭과(호로조·오골계 등)와 꿩과(긴꼬리꿩·황금계·은계 등) 동물은 '모래 찜질'을 하며 피서를 즐긴다. 모래를 판 뒤 가슴을 땅에 대고 가만히 있는다. '일광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답은 'NO'. 이들은 땅 속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이용해 더위를 피하고 있는 것이다.

여름나기를 위한 동물원의 부담도 만만찮다. 전기료는 평상시에 500~600만원 수준이지만, 여름에는 800만원 가량이 나온다. 여름 수도료는 1천만원에 달한다. 보통 600만~800만원인 것에 비하면 25~66% 정도 더 많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우리도 할 수 있다"

'(사)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회장 문상필)가 1일 오전 담양군 무정면 제 11공수여단에서 개최한 '정신지체 장애아동 병영체험'에서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조교의 구령에 맞춰 체조를 하고 있다. 이날 체험에는 100여명이 참가, 군시설물을 견학하고 3km를 행군했다.

/담양=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CEO가 성희롱 했을 땐 규정보다 더 징계해야"

광주노동청,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설문

CEO(최고 경영자)가 직원을 성추행했을 때 여성 직원들은 현행 규정보다 강력한 '징계조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광주지방노동청이 최근 명예고용평등감독관 50명(남녀 각 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성 응답자의 41.2%가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했을 때 징계조치 해야한다'고 답했다. 또 35.3%는 '경미한 성희롱도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밝혀, 현행 규정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성응답자 43.9%는 '과태료 부과가 적절하다'고 응답해 대조를 보였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는 징계조치를 내릴 것'(제14조)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법인 대표자가 성희롱을 했을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39조 등)고 규정하고 있다.

'남녀 근로자에게 차별 없는 승진기회 제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여성응답자들은 '사회적 인식 변화'를 1위(52.9%)로 꼽았지만, 남성응답자는 '여성직원의 능력개발 노력'이라고 답한 사람이 39.1%로 가장 많았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성응답자 중 52.9%가 '사회의 여성에 대한 편견 때문'을 1위로 답했고, 남성은 34.8%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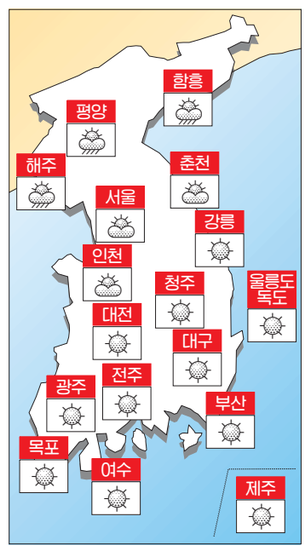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찜통주의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8월 2일 (음 7월 9일) ◇전국날씨

광 주	구름조금	25~33℃
목 포	구름조금	25~32℃
여 수	구름조금	24~30℃
완 도	구름조금	24~31℃
구 례	구름조금	24~35℃
해 남	구름조금	23~31℃
장 흥	구름조금	23~32℃
고 흥	구름조금	23~32℃
순 천	구름조금	23~34℃
영 광	구름조금	25~32℃
진 도	구름조금	26~33℃
전 주	구름조금	25~34℃
남 원	구름조금	22~34℃
정 읍	구름조금	24~34℃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5~2.5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1.5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06:44 19:43 썰물 12:11 --:--
여 수 밀물 01:08 14:05 썰물 07:24 20:11

▲해뜸 05:42 ▲해짐 19:35 ▲달뜸 12:57 ▲달짐 23:2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3(목)	4(금)	5(토)	6(일)	7(월)	8(화)
날 씨						
최저/최고	24/32	25/32	25/33	24/32	24/31	24/31

생활안내

교통안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철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상 담

- 당직변호사(2일) 정찬원 228-3500
- 법무사회 법률상담(2일) 강승호 239-1809
- 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협회성폭력상담소 671-4050
- 광주 YWCA 527-0011
-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번없이 1388
-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 병무민원상담 광주전남병무청 1588-9090
-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 광주 YWCA 524-5400
- 주부교실 232-0643~4
-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신 고

- 학교폭력 국번없이 112
- 전남경찰청 226-0112
- 광주지검 233-2828
- 사이버테러 (02)118
- 가정폭력 여성긴급 국번없이 1366
- 여자형사기동대 363-0155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91
-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89

車정비업계 "수리비 직접 받겠다"

광주·전남 고객 불편 예상

정부의 '자동차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움직임에 반발한 광주·전남의 자동차 정비업계가 보험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 수리 고객으로부터 직접 요금을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여 고객 불편 등 파장이 예상된다.

1일 '광주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조정래)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상위 5개 보험사와 계약한 정비업체들이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계약해지 공문을 보내고 있다.

정비업체들이 보험사와 계약을 해지하면 자동차 소유자들은 차량 수리비를 정비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다시 보험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거나, 보험사와 계약한 다른 정비소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한다.

현재 계약해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광주의 정비업체는 160여 개며, 전남은 220여 개에 이른다.

광주의 자동차 정비업계는 과거 보험사로부터 시간당 1만4천~1만5천400원의 시간당 공임을 받았으나, 정비요금 공표제도로 공임이 1만8천~2만500원으로 인상됐다. 정비업계는 공표제가 폐지되면 보험사가 공임을 다시 과거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고 밝히고 있다.

/임주형기자 jhlim@r

▲정비요금공표제도=보험가입 차량이 수리를 할 경우, 정비업체가 보험사로부터 받아야 할 시간당 공임을 정부가 제시하는 제도. 건교부는 지난해 정비요금을 시간당 1만8천228원~2만511원으로 공표했다.